

경제자유구역 지정·울촌 2산단 국가산단 전환 요청

혁신경제 장관·시도지사 연석회의 광주·전남도 건의 내용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 친환경 경자동차 부품인증 지원센터 조성, 초소형 전기차 산업 지원 등을 각각 건의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이들 사업이 광주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발굴·확산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친환경경자동차 부품인증 지원센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연석회의에서 시도지사 대표로 발언한 이 시장은 "광주시는 외국인 자본유치, 선진기술 플랫폼 확보 차원에서 빛그린산단과 도점산단을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내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권 경제자유구역은 광주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비즈니스 투자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빛그린산단과 남구에너지밸리, 광주공항을 포함해 총 1147만700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시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

친환경차 부품센터 조성 시급 김부총리 "광주형 일자리 지원" 전남도 지역현안 5건 지원 요청

육성을 위해 친환경경자동차 부품인증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C-ITS(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조성 등의 국비지원도 건의했다. 또 이 시장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광용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지원 ▲안과·광학 의뢰기기 글로벌화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현안 5건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지사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 포화 상태인 여수국가산단의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인접한 울촌 제2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다. 또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을 위한 여수·광양지역 공업용수도 확장사업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6조~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480억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도 건의했다. 김지사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장 증설투자 의향이 있으나 용지와 물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인접해 조성되는 울촌 2산단을 조기 매립해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해수부 어촌뉴딜300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요청했다. 김지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계통망 확충이 따르야 한다"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김지사의 현안 건의에 해당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울촌 2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에 대해 정부 측은 "장기적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대책은 수요조사를 거쳐 차기 광역 수도정비 기본계획(2019~2020년)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은산분리 완화 법안 8월 처리 합의

특활비는 폐지 대신 양성화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자본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표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급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는 또 특활비의 투명성과 양성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특활비가 상당 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어 영수증, 증빙 서류도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

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 더위에 나만의 바닷가 하나 있었으면...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4) 바다

"누구나/바닷가 하나씩은/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정호승 작 '바닷가에 대하여' 중에서) 참으로 길고 극심한 무더위다. 더위를 피하려 가는 것이 여름휴가이겠지만 여름은 어디를 가도 염천더위를 벗어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자기만의 바닷가 하나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트이고 시원할 것 같다. 도시사람으로 오래 살아서 나만의 바다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반겨주는 그 바다를 그림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가. 제주 출신의 강요배작가(1952~)의 '수평선' (2018년 작)은 제주의 푸르고 예쁜 바다를 그린 작품이다. 에머랄드 빛에서 코발트빛으로 깊어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끝없이 일렁이는 파도와 함께 어느덧 우리를 마음도 수평선 위에 가닿을 것만 같다. 주로 4·3항쟁 등 역사적 풍경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와 깊이를 드러내는 작가의 작품 앞에서 단순한 감상에 젖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만 이 바다와 함께라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최근 제주 풍경과 자연의 빛들을 종이로 구기거나 여러 겹 접은 종이빛을 이용



강요배 작 '수평선'

해 거칠고 독특하게 묘사한 심상 풍경의 작품들로 서울 학교재 갤러리에서 전람회를 가진 작가는 "민중미술에서 회화의 본질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 풍경에 비친 작가의 심상을 추상의 세계와 연결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가노트 '사물을 보는 법'에서 '파도, 소리, 바람, 스침, 차가움, 힘찬, 거칠음, 하염없음... 이 전체 속에 흐르는 기운이 형이나 색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바다 앞에서 그 기운을 느껴본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부사>

한전공대 설립 한전 의지 재확인 이현빈 설립단장 광주시 이어 나누시 방문

한전이 최근 설립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8일 한전과 나누시에 따르면, 전남 나누시를 방문해 강인규 시장과 만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한전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설립 시기 지연과 규모 축소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애초 계획인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통해 설립 전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간 운영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공대 설립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고, 공대 설립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을 검토한 수준"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대 해석 자체를 요청했다. 강인규 나누시장은 "한전공대는 설립 지연이나 규모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한전과의 논의 채널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펜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